

## 인식적 독단론에 제기되는 베이즈주의적 비판에 대한 새로운 제안\*

홍 예 리

**【국문요약】** 인식적 독단론은 P인 것 같은 경험은 P라고 믿을만한 즉각적 정당화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독단론은 베이즈주의와 양립불가능하다는 비판에 부딪혀왔다. 이 비판은 대표적으로 화이트에 의해서 제기되었고, 독단론을 옹호하는 철학자로서 프라이어는 이 비판에 대응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판의 내용과 프라이어의 대응을 살펴본 후 우선 프라이어의 대응이 가진 문제점을 보인다. 나아가 프라이어의 대응이 가진 문제점을 피하면서 이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한 가지 새로운 제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제안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한 가지 문제를 보임으로써 이 비판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을 내린다.

**【주요어】** 독단론, 즉각적 정당화, 베이즈주의, 화이트, 프라이어

접수일자: 2015.07.17 심사 및 수정완료일: 2015.10.04 게재확정일: 2015.10.12

\* 이 논문을 읽고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지적해주시고, 보다 넓은 주제의 논의에 대해서도 유익한 심사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분들께서 지적해주신 점을 이 수정본에서 모두 담아내지는 못하였지만 앞으로의 연구에 중요한 배움이 되었다.

인식적 독단론(epistemic dogmatism, 이하 독단론)은 경험의 인식적인 역할에 대한 입장 중 하나이다. 이 입장은 경험이 우리에게 우리가 경험하는 바대로 믿을만한 즉각적이고 파기가능한 정당화(immediate and defeasible justification)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독단론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철학자로는 프라이어(James Pryor 2000, 2004, 2013)가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독단론은 프라이어의 입장을 중심으로 할 것이다.

한편 독단론은 베이즈주의(Bayesianism)와 양립불가능하다는 비판에 부딪혀왔다. 이 비판을 제기한 대표적인 철학자는 화이트(Roger White 2006)이다. 프라이어(Pryor 2013)는 화이트의 비판에 대해서 대응을 제기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대응이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보며, 프라이어의 대응이 직면하는 문제를 피하면서 화이트의 비판에 대응할 수 있는 한 가지 새로운 제안을 소개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제안이 성공하더라도 한 가지 남아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화이트의 베이즈주의적 비판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논의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우선 1장에서 독단론의 주장을 정리하고 이후의 논의를 위한 몇 가지 구분을 도입할 것이다. 2장에서는 베이즈주의를 이용한 화이트의 독단론 비판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화이트의 비판에 대한 프라이어의 대응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4장에서는 프라이어의 대응이 가진 문제점을 피하면서 화이트의 비판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대응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소개한다. 5장에서는 남아있는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이 문제점을 통해서 화이트의 비판에 대한 진단을 제시한다. 6장에서는 논의를 정리하며 마무리한다.

## 1. 경험에 대한 인식적 독단론

이 장에서는 독단론의 주장을 살펴보고 앞으로 필요한 몇 가지 구분을 도입할 것이다. 독단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제로 정리할 수 있다.

- D1. 만약  $S$ 가  $P$ 인 것 같은 경험을 한다면, 그리고  $S$ 가  $\sim P$ 임을 의심할만한 파기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S$ 는  $P$ 라고 믿을 만한 즉각적 정당화를 가진다.
- D2. D1의 즉각적 정당화는 파기가 가능하다.
- D3.  $\sim P$ 의 부정에 대한 정당화를 포함하여,  $S$ 는 D1의 정당화를 얻기 위해서 D1의 정당화에 앞서서 그 어떤 정당화(사전적 정당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

독단론은 D1, D2, D3를 주장한다. 나에게  $P$ 처럼 보이고 다른 파기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나는  $P$ 를 즉각적으로 정당하게 믿을 수 있다. 파기자가 생길 경우 이 즉각적 정당화는 파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즉각적 정당화를 얻기 위해서  $\sim P$ 의 부정에 대한 정당화와 같은 것을 이 즉각적 정당화보다 먼저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 다른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일단 경험하는 그대로 믿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점에서 이 즉각적 정당화는 초견적 정당화(*prima facie justification*)이기도 하다. 즉, 나는 아무런 사전적 정당화가 없어도 단지 어떤 경험을 하는 상태에 있는 것만으로 그 경험의 내용에 대해서 초견적이고 즉각적이면서 파기가 가능한 정당화를 얻을 수 있다.

이제 논의에 필요한 몇 가지 구분을 살펴보자. 첫째, 정당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명제적 정당화(*propositional justification*)

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적 정당화(doxastic justification)이다. 명제적 정당화는 그 명제를 믿을만한 토대를 가진 것을 말한다. 믿음적 정당화는 믿음의 성질 중 하나로, 파기자가 없는 상태에서 명제적 정당화를 가진 명제를 믿는 것이며, 특히 명제적 정당화를 제공한 그 근거를 토대로 하여 그 믿음을 믿는 것을 말한다.<sup>1)</sup> 따라서 믿음적 정당화가 성립한다면 명제적 정당화도 성립한다. 한편 명제적 정당화만 갖고 믿음적 정당화는 갖지 못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어떤 명제를 믿을만한 토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파기자로 인하여 그 명제를 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독단론에서 주장하는 즉각적 정당화는 경험의 내용을 믿을만한 파기 가능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제적 정당화에 해당한다.

둘째, 파기자에도 두 종류가 있다. 파기자(defeater)란 증거가 가설을 뒷받침하는 힘을 파기하는 또 다른 증거를 말한다. 두 종류의 파기자는 반대자(opposer)와 약화자(underminer)이다. 어떤 증거 E가 가설 H를 뒷받침한다고 할 때, H와 양립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H를 부정하는 증거를 반대자라고 한다. 한편 H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지만 H를 뒷받침하는 E의 힘을 약화시키는 증거를 약화자라고 한다.

예를 들어, Y의 사체가 발견되었고, X가 Y를 살해한 범인이라고 말하는 Z의 증언이 있다고 하자. Z의 증언은 ‘X가 Y를 살해한 범인이다’라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그런데 X가 사건이 일어난 시각에 사건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증명되었다.

1)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 중 한 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주셨다. “믿음적 정당화가 이뤄지려면, 적어도 세 가지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i) a가 p를 믿음에 있어서, 어떤 증거 e에 의해서, 명제적으로 정당화된다. (ii) a가 실제로 p를 믿는다. (iii) a는 e에 기반해서(based) p를 믿는다.” 이와 관련하여 심사위원께서 제기하신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나의 입장은 본 논문의 후반부에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이 때 X의 알리바이 증거는 가설에 대한 반대자 역할을 한다. X가 동시에 다른 두 장소에 있을 수 없으므로, 알리바이 증거는 가설과 양립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알리바이 증거가 아니라 새로운 증언이 주어졌다고 해 보자. 참고인 W는 Z가 평소에 X를 시기하였으며 기회만 있다면 Z가 X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W의 증언은 X가 범인일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하지만 Z의 증언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힘을 약화시킨다. 이 때 W의 증언은 약화자이다.

셋째, 프라이어는 약화자도 두 종류로 구분한다(Pryor 2013, pp.96-100). 하나는 흔한 약화자(quotidian underminer)이고 다른 하나는 흔치 않은 약화자(non-quotidian underminer)이다. 흔한 약화자는 특정한 보조 가설을 부정하는 약화자로, 보조 가설이 정당화될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기압계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할 때, ‘기압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의심은 흔한 약화자이다. 이 의심은 ‘기압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라는 특정한 보조 가설을 반대한다. 이 의심이 주어졌을 때, 비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정당하게 갖기 위해서는 기압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보조 가설에 대한 정당화가 필요하다. 한편 흔치 않은 약화자는 특정한 보조 가설을 부정하지 않으며 어떠한 사전적 정당화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 종류의 약화자에는 회의주의적 가설, 미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 인식주체의 전반적인 추론 능력에 대한 의심 등이 포함된다. 독단론자는 D3를 주장하였으므로, 흔한 약화자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약화자를 흔치 않은 약화자라고 볼 것이다.

정리하자면 독단론은 별다른 의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무런 추가 조건 없이 일단 경험하는 대로 정당하게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 주장은 일상적인 생각과 일치하는 직관적이고

간단한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독단론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추는 길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다음 장을 통해 우리는 베이즈주의에 의해서 독단론이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지 알아볼 것이다.

## 2. 독단론에 대한 화이트의 베이즈주의적 비판

화이트의 비판(White 2006)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에서 그는 독단론의 주장이 함축하는 바가 베이즈주의와 상충하기 때문에 우리가 독단론과 베이즈주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후반부 비판은 베이즈주의를 토대로 독단론이 정당성 전이 실패에 부딪힘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그는 독단론과 베이즈주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딜레마에서 결국 독단론이 실패함을 주장한다. 이 장에서는 먼저 베이즈주의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독단론을 그 형식적인 틀 내에서 다루고자 하는 화이트의 작업을 살펴보고, 이후 화이트의 비판을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 1) 베이즈주의와 독단론의 즉각적 정당화

베이즈주의는 가설에 대한 주관적 견해와 객관적인 자료를 총합하여 가설에 대하여 좋은 예측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베이즈주의에서는 자료의 가설 입증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추론 과정을 거친다(강기훈 외 2005, p.2).

- (a) 가설의 사전확률 결정
- (b) 사전확률과 자료를 이용한 사후확률의 계산
- (c) 사후확률을 이용한 가설에 대한 추론

(a) 단계에서 말하는 사전확률(prior probability)은 가능한 사전 정보(prior information)를 이용해 가설의 신뢰도가 취할 수 있는 값을 나타낸 것이다. 이 단계는 자료가 주어지기 전 가설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를 반영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사건  $A$ 가 일어날 확률은  $P(A)$ 로 나타낸다. (b)에서는 (a)에서 결정한 사전확률과 자료가 나타내는 값을 베이즈 정리에 도입하여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y)을 계산한다. 자료란 일반적으로 실제 확률실험에서의 객관적인 결과를 말한다. (b)에 해당하는 과정을 갱신(update)이라고 한다. 가설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값이 사전확률에서 사후확률로 변화하였다는 뜻이다. 만약 자료가 사건  $B$ 라면,  $P(A|B)$ 는 사건  $B$ 가 일어났을 때 사건  $A$ 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을 나타낸다. 이 확률을  $B$ 에 대한  $A$ 의 사후확률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c)에서는 (b)의 계산 결과에 따라 가설에 대한 자료의 입증 여부를 추론한다. 만약 사후 확률인  $P(A|B)$ 가 사전확률인  $P(A)$ 보다 높아진다면 자료는 가설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 반대라면 자료는 가설을 반입증한다.

화이트는 독단론의 주장을 베이즈주의의 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White 2006).

- E. 손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 H. (진짜 손 가설) 이것은 손이다.
- F. (가짜 손 가설) 이것은 가짜 손이다.

F의 가짜 손은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어서 보는 것만으로 진짜 손과 구분이 불가능하다. 독단론에 따르면 경험 E는 H를 믿는 것에 대한 즉각적 정당화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 정당화는  $\sim F$ 에 대한 사전적 정당화를 갖지 않더라도 경험 E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독단론이 말하는 정당화 개념은 베이즈주의의 확률(probability) 또는 신뢰도(credibility 또는 credence) 개념으로 바꿀 수 있다. 독단론의 주장처럼 E가 H를 믿을만한 즉각적 정당화를 제공한다면, H의 사전확률  $P(H)$ 보다 E가 발생한 후 E의 사후확률인  $P(H|E)$ 가 증가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angle \text{독단론의 주장} \rangle \quad P(H) < P(H|E)$$

다음으로 화이트는 독단론의 주장이 함축하는 바를 보여주기 위해서 닫힘 원리를 도입한다.

$\langle \text{닫힘 원리} \rangle$  만약 S가 P를 믿는데 있어서 정당화된다면, 그리고 P가 Q를 함축함을 안다면, S는 Q를 믿는데 있어서도 정당화된다.<sup>2)</sup>

- 
- 2) 심사위원 중 한 분께서는 “심사위원은 개인적으로 독단론의 가정으로부터 베이즈주의가 틀렸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보이는 화이트의 논변에 대해서 그것이 의존하는 닫힘원리를 거부하는 명백하고 충분한 동기도 있어 보이는 해결책이 왜 논의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해하기로 이 질문은 화이트의 입장이 닫힘 원리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 없이 화이트의 입장과 프라이어의 입장, 이후 나의 제안까지 모두 닫힘 원리를 전제하고 논의하는 것에 대한 의문인 것 같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자면, 다음의 이유 때문이었다. 화이트는 닫힘 원리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ibid, p. 529). 그는 P가 Q를 함축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를 믿는 것은 정당화되지만 Q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이는 P의 참입에 대해서 Q의 참입보다 더 많은 신뢰도를 가진 상황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는 비정합적인 태도임을 지적한다. 그의 지적에 따르면, ‘이미 P가 Q를 함축한다고 하였을 때 P는 참이 되 Q는 참이 아닐 가능성은 배제되었던 반면, 위와 같은 태도는 P에 대한 신뢰도가 Q보다 더 높다는 점에서 P는 참이지만 Q는 참이 아닐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놓는다(ibid).’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논의를 시작하게 되는 화이트의 비판이 닫힘 원리를 문제 삼고 있지 않으므로, 닫힘 원리를 부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다. 닫힘 원리를 부



E는 H를 정당화하는데 충분하고, H는  $\sim F$ 를 함축한다. 만약 내 눈 앞에 있는 것이 진짜 손이라면 그것은 가짜 손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닫힘 원리에 의해서 독단론자는 H뿐만 아니라  $\sim F$ 를 믿을만한 즉각적 정당화도 가지게 된다. 이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독단론의 주장이 함축하는 바〉  $P(\sim F) < P(\sim F|E)$

독단론의 주장과 그 주장이 함축하는 바를 베이즈주의로 나타내면  $P(H|E)$ 와  $P(\sim F|E)$ 는 각각  $P(H)$ 와  $P(\sim F)$ 보다 큰 값을 가져야 하고, 반대로  $P(F|E)$ 는  $P(F)$ 보다 낮은 값을 가져야 한다. 즉 경험이 경험하는 그대로 믿을만한 즉각적 정당화를 준다면, E는 H와  $\sim F$ 를 입증하되 F는 반입증할 것이다.

## 2) 화이트의 비판 (1) - 독단론과 베이즈주의의 상충

이제 화이트의 비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비판의 전반부는 독단론과 베이즈주의가 서로 상충하는 결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독단론의 주장과 다르게, 베이즈주의의 증명에 따르면 E는  $\sim F$ 가 아니라 F의 확률을 높여준다. 먼저 우리는 다음의 확률을 받아들일 수 있다.

〈H와 F가 각각 발생할 경우 E가 일어날 확률〉

$$P(E|H) \cong P(E|F) \cong 1$$

가짜 손은 매우 정교해서 보는 것만으로 진짜 손과 구분이 불가

---

정하는 입장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논의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삼아야 할 것 같다.

능할 정도라고 했으므로, 진짜 손이 있어도 손처럼 보일 것이고, 가짜 손이 있어도 손처럼 보일 것이다. 따라서 이 두 확률은 거의 1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다음 두 결과도 받아들일 수 있다.

〈E의 사전확률과 H가 발생한 경우 E의 사후확률 비교〉

$$P(E) < P(E|H)$$

〈E의 사전확률과 F가 발생한 경우 E의 사후확률 비교〉

$$P(E) < P(E|F)$$

위 두 부등식에서 모두 우변은 거의 1에 가깝다고 하였다. 좌변은 E의 사전확률로, 다른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E가 발생할 주관적인 확률이다. 이 주관적 확률은 1에 가까운 두 경우의 확률보다 낮을 것이다.

위 두 부등식의 양변을 좌변으로 나눈 것은 다음과 같다.

$$1 < \frac{P(E|H)}{P(E)}$$

$$1 < \frac{P(E|F)}{P(E)}$$

베이즈 정리에 따라 우리는 E가 발생했을 때 H와 F의 조건부 확률을 각각 구할 수 있다.

$$\langle \text{베이즈 정리} \rangle P(A|B) = \frac{P(B|A)P(A)}{P(B)}$$

$$\langle \text{E가 발생했을 때 H의 조건부 확률} \rangle P(H|E) = \frac{P(E|H)P(H)}{P(E)}$$

$$\langle E \text{가 발생했을 때 } F \text{의 조건부 확률} \rangle P(F|E) = \frac{P(E|F)P(F)}{P(E)}$$

베이즈 정리에 따른 조건부 확률을 이용하기 위해서 앞서 정리한 부등식의 양변에 각각  $P(H)$ 와  $P(F)$ 를 곱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P(H) < \frac{P(E|H)}{P(E)} \times P(H)$$

$$P(H) < P(H|E)$$

$$P(F) < \frac{P(E|F)}{P(E)} \times P(F)$$

$$P(F) < P(F|E)$$

위 두 부등식은 H와 F 모두 사후확률이 사전확률보다 높아짐을 보여준다. 즉, 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험 E는 H를 입증하는 한편 F도 입증한다. 그리고 이 결과는 E가 H와  $\sim F$ 를 입증하되 F는 반입증한다는 독단론과 상충된다.

화이트는 위 증명을 보다 쉽게 나타내기 위하여 다음과 사고실험을 제시한다(ibid, pp.535-536). 세 장의 카드가 있고, 카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드 A: 손을 잘라내고 가짜 손으로 대체한다.

카드 B: 손을 그대로 둔다.

카드 C: 손을 잘라내고 그대로 둔다.

내가 마취된 사이에 누군가가 세 장의 카드 중 하나를 뽑아서

그대로 시행한다고 하자. 내가 아직 손에 대한 감각이 없는 상태로 깨어났을 때, 나는 손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시트 로 가려진 상태에서 내가 가짜 손을 갖지 않았을 확률을 생각한다. 이 확률은  $2/3$ 으로, 세 장의 카드 중 카드 B와 카드 C를 뽑았을 확률에 해당한다. 이제 시트를 들추어보자. 손처럼 생긴 것이 보인다. 가짜 손이 있지 않을 확률은  $1/2$ 이 된다. 카드 C를 뽑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카드 A와 카드 B라는 두 가지 경우의 수 중 카드 B가 나올 확률이기 때문이다. 이 때 가짜 손이 있지 않을 확률은 사전확률  $2/3$ 에서 사후확률  $1/2$ 로 낮아졌다. 즉 손을 보는 것 같은 경험은 가짜 손이 있지 않을 가설을 반입증한다. 바꾸어 말하면 이 사고실험은 E가 F를 입증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화이트의 비판의 전반부는 독단론과 베이즈주의의 상충된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독단론을 받아들일 경우 베이즈주의를 거부하거나, 베이즈주의를 받아들일 경우 독단론을 거부해야 하는 딜레마를 제시한다.

### 3) 화이트의 비판 (2) - 베이즈주의와 독단론의 정당성 전이 실패

화이트의 비판 중 후반부는 베이즈주의가 독단론의 정당성 전이 실패를 증명함으로써 독단론의 즉각적 정당화는 불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독단론은 실패한다는 내용이다. 정당성 전이 실패 문제는 라이트(Wright, 2002)가 제시한 바 있다. 이 문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닫힘 원리에 의해서 H로부터  $\sim F$ 가 정당화를 얻는 것은 H가 정당성을  $\sim F$ 로 전이하는데 성공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이는 애초에 H가 E로부터 정당성을 얻는데 있어서  $\sim F$ 가 선제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H는 E로부터 얻은 정당성을  $\sim F$ 로 전이하는데 실패한다. 화이트는 이를 베이즈주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풀어낸다.

H는  $\sim F$ 를 함축한다. 그렇다면  $P(H|E)$ 는 아무리 높아져도  $P(\sim F|E)$ 와 같은 정도까지만 높아질 수 있고  $P(\sim F|E)$ 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P(H|E) \leq P(\sim F|E)$$

그리고 전반부의 증명에 따르면  $P(F) < P(F|E)$ 이었으므로, 다음을 도출할 수 있다.

$$P(\sim F|E) < P(\sim F)$$

이 두 부등식을 합치면, 우리는 다음을 얻을 수 있다.

$$P(H|E) \leq P(\sim F|E) < P(\sim F)$$

$$P(H|E) < P(\sim F)$$

위 증명에 따르면, E가 발생하였을 때 H의 확률은 E가 없는  $\sim F$ 의 확률보다 높을 수 없다. 즉 H의 사후확률은  $\sim F$ 의 사전확률보다 높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화이트는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을 다음의 인용문처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나에게서는, 손이 보이는 경험은 오직 내가 이미 이것이 가짜 손이 아니라는 것에 확신이 있을 때에만, 이것이 손이라는 것을 정당하게 확신할 수 있게 해 준다(White 2006, p.534).<sup>3)</sup>

화이트는 H의 사후확률이  $\sim F$ 의 사전확률보다 높을 수 없다는 사

---

<sup>3)</sup> “So its appearing to me that this is hand can render me justifiably confident that it is a hand, only if I am already confident that it is not a fake-hand.”

실을 H의 사후확률보다  $\sim F$ 의 사전확률이 먼저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에 따라 독단론이 주장하는 초견적이면서 즉각적인 정당화는 회의주의적 가설의 부정에 대한 사전적 정당화를 확보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된다. 이는 독단론이 말하는 즉각적인 정당화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1장에서 독단론은 D3를 주장한다고 하였으나, 화이트의 비판에 따르면  $\sim F$ 에 대한 정당화를 먼저 확보해야만 H가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결국 독단론은 실패하는 것으로 보인다.

### 3. 기존의 대응: 프라이어의 대응과 문제점

#### 1) 프라이어의 대응

화이트의 비판에 대한 기존의 대응 중 하나로서, 프라이어의 대응을 살펴보자(Pryor 2013). 프라이어는 독단론을 포함한 더 넓은 입장인 경신주의(Credulism)의 입장에서 대응을 제시한다.

독단론과 경신주의는 공통적으로 D1과 D2를 주장한다. 경험은 나에게 경험하는 바대로 믿을만한 초견적이고 즉각적이며 파기가능한 정당화를 준다. 그러나 경신주의는 D3를 주장하지 않는다. 독단론이 경험이 주는 즉각적 정당화를 얻기 위해서 그 어떤 사전적 정당화도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던 반면 경신주의는 두 종류의 약화자 - 흔치 않은 약화자와 흔한 약화자 - 에 대해서 독단론과 다른 입장을 취한다. 흔치 않은 약화자에 대해서는 독단론과 마찬가지로 사전적 정당화가 필요하지 않지만, 흔한 약화자에 대해서는 약화자를 부정하는 사전적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장의 세 가지 명제 중 F는 H의 부정이기 때문에 약화자(underminer)가 아니라 반대자(opposer)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러나 프라이어는 비록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F를 흔치

않은 약화자로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프라이어는 약화자와 반대자의 구분이 그리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한다(ibid, p.91). 어떤 증거 E가 가설 H를 입증한다고 할 때, 반대자는 H의 부정에 대한 증거이다. 하지만 반대자도 H의 부정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 H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림으로써 결과적으로 H를 뒷받침하는 E의 힘을 약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약화자 또한 H에 대해서는 입증도 반입증도 하지 않지만 H를 뒷받침하는 E의 힘을 약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H의 부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무엇이 먼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순서상의 차이는 있지만, 반대자와 약화자의 결과적 효과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약화자와 반대자의 역할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프라이어는 다음과 같은 예시를 제시한다(ibid, pp.93-94). 나는 어떤 연기를 마실 때마다 청각적인 환각을 겪는다. 지금 내 주변에는 그 연기가 퍼져 있다. 이 때, 나는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다. 나의 청각 경험은 ‘내 주변에 새들이 있다’라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그런데 나의 후각 경험은 반대자인 동시에 약화자이다. 우선 주변에 연기가 있다면 새들이 그대로 앉아서 지저귀고 있을 리가 없으므로, 이 후각 경험은 가설을 직접적으로 부정한다. 따라서 반대자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후각 경험은 청각 경험이 환각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제기함으로써 청각 경험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힘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F는 위 예시의 후각 경험처럼 반대자이자 약화자이다. 우선 F는 H의 부정이다. 한편, F의 경우에도 E는 일어날 것이고 나는 H와 F 중 어느 상황에서 E가 발생한 것인지 주관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F는 E가 H가 아닌 상황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의심을 제기함으로써, E가 H를 뒷받침하는 힘을 약화시킨다. 프라이어는 이처럼 역할이 혼재된 경우를 넓게 약화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ibid, p.93), F도 약화자로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프라이어는 F를 약화자 중에서도 혼치 않은 약화자로 여긴다. 혼한 약화자는 특정한 보조 가설의 부정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혼한 약화자의 사례였던 ‘기압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의 경우, 바로 이 사례에 해당하는 특정한 기압계에만 해당하는 의심으로, 해당 기압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보조 가설에 대한 부정이었다. 반면 F는 지각 경험 전반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가설이 경험 전반을 의심하는 전면적 회의주의의 가설로서 제시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F는 특정한 보조 가설의 부정이 아니며, 혼한 약화자가 아니라 혼치 않은 약화자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부분의 설명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데, 이는 이 장의 후반부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현재의 논의에서 F가 혼치 않은 약화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경신주의도 E가 H에 대한 즉각적 정당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혼치 않은 약화자인 ~F에 대한 사전적 정당화가 요구된다고 보지 않는다. 독단론이 경신주의보다 더 강한 주장을 하는 입장이지만, 두 입장 모두 현재 논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F에 대한 사전적 정당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같은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프라이어가 제시하는 경신주의 입장에서의 대응을 독단론 입장에서의 대응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제 화이트의 비판에 대한 프라이어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그는 F처럼 반대자와 약화자 역할이 혼재된 경우 베이즈주의로 형식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먼저 약화자 U가 가설 H를 뒷받침하는 증거 E의 힘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 볼 수 있다.

$$P(H) \leq P(H|U \text{ and } E) < P(H|E)$$



E가 H를 입증한다면 H의 사후확률은 사전확률보다 높아질 것이다( $P(H) < P(H|E)$ ). 그런데 E가 발생하고 또한 U도 발생한다면, H의 사후확률인  $P(H|U \text{ and } E)$ 는 U 없이 E만 발생할 때 H의 사후확률보다 낮아질 것이다( $P(H|U \text{ and } E) < P(H|E)$ ). 만약 U의 힘이 매우 강해서 E가 일어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라면 이 확률은 H의 사전확률과 같을 것이고( $P(H) = P(H|U \text{ and } E)$ ), U의 힘으로 인해서 E의 힘이 약해졌지만 완전히 기각되지는 않았다면 이 확률은 H의 사전확률보다 높지만 E만 일어났을 때 H의 사후 확률보다는 낮을 것이다( $P(H) < P(H|U \text{ and } E) < P(H|E)$ ). 그런데 약화자와 반대자 역할을 모두 하는 F의 경우 위 부등식의  $P(H|U \text{ and } E)$ 로 나타내기 어렵다. 반대자는 H를 부정하는 반면, 위 부등식에서 나타내는 약화자는 순수한 약화자로서 H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F와 같은 경우를 베이즈주의로 형식화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프라이어의 대응이 여기에서 그친다면 지나치게 단순한 대응이 될 것이다. 그는 일단 F를 베이즈주의로 형식화할 수 있다고 해도, 화이트의 대응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독단론의 주장들을 베이즈주의로 형식화하는 데에는 몇 가지 가정들이 필요한데, 화이트는 이 가정들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내적인 모순을 가지기 때문이다.

먼저 프라이어는 독단론의 정당화 개념을 베이즈주의로 형식화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정들이 받아들여진다고 본다.<sup>4)</sup>

4) 프라이어는 여섯 가지 가정을 제시하지만(ibid),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 가정만 다루고 있으며, 논의의 원활한 전개를 위하여 각 가정들에 매겨진 번호는 본 논문에 등장하는 순서대로 바꾸었다. 본 논문에서 제외된 세 가지 가정은 각각 다음과 같다. 첫째(원문의 Assumption 3), “약화하는 증거의 부정적인 효과는 비록 그 효과가 약화된 즉각적 정당화를 의도할지라도, 그

- 〈가정 1〉 H에 대한 더 많은 정당화를 얻는 것은 H의 확률을 높이는 것과 일치한다.<sup>5)</sup>
- 〈가정 2〉 갱신하는 것은 믿을 만한 즉각적 정당화를 얻는 것과 일치한다.<sup>6)</sup>
- 〈가정 3〉 (사전확률의 인식적 선행성) 만약 B를 믿기 위한 어떤 새로운 양의 정당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A를 믿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리* 정당화되어야 한다면, B를 믿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정당화를 즉각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B를 믿기 위한 새로운 정당화는 A를 믿기 위한 사전적 정당화를 적어도 그만큼은 포함해야 했기 때문이다.<sup>7)</sup>

---

형식적인 모델에 대해서 세계가 다른 인풋이 아니라 특정한 한 인풋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비공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의 형식적인 모델 안에서 나타내어져야 한다.” (원문: The negative effect of undermining evidence, even when it purports to be immediate justification that’s undermined, should be represented inside our formal models, rather than “off-stage,” in terms of when the world supplies the model one input rather than another. (ibid, p. 108.)) 이 가정은 약화자가 증거의 힘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베이즈주의의 형식적인 모델 내에서 형식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프라이어가 진단하기에 화이트의 비판과 자신의 대응 모두 이 가정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이 가정은 그 성격상 가정(assumption)이라기보다 오히려 ‘꽤 강한 야망 (quite a strong ambition)’에 해당한다(ibid, p. 108). 이는 독단론에서 말하는 약화자를 베이즈주의 내에서 형식화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라는 점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의 4장과 5장에서 제시될 논의에서도 이 가정은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이 가정은 제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외된 나머지 두 가정(원문 Assumption 5와 Assumption 6)은 베이즈주의의 다른 한 종류인 제프리 베이즈주의(Jeffrey Bayesianism)에 대한 것으로,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화이트의 독단론 비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 제외하였다.

- 5) “**Assumption-1** Getting more justification for H coincides with raising H’s probability.” (ibid, p. 99)
- 6) “**Assumption-2** What you update on coincides with what you’re immediately justified in believing.” (ibid, p. 105)

〈가정 1〉은 정당화를 더 얻는다는 것이 베이즈주의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다. 그 대답은 사후확률이 사전확률보다 증가하는 쪽으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 1〉은 화이트의 비판에서도 전제된 것이었다. 화이트는 E가 H를 믿을만한 즉각적 정당화를 제공한다는 것을 E가 일어난 후 H의 사후확률이 H의 사전확률보다 높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프라이어는 독단론의 정당화의 개념을 사전확률 대비 사후확률의 증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우려를 인정한다. 독단론이 말하는 정당화는 ‘초견적 정당화(prima facie justification)’로, 복잡한 과정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베이즈주의의 사후확률은 사전확률과 자료라는 두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하며 모든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 얻은 ‘결과적 정당화(ultima facie justification)’인 동시에 다시금 약화되거나 파기될 수 없는 정당화이고, 따라서 결과적 정당화는 초견적 정당화일 수 없다는 것이다(ibid, pp.103-10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이어는 〈가정 1〉을 수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독단론에서 말하는 정당화가 베이즈주의에서 말하는 확률 증가의 개념과 다르다고 말할 경우, 독단론은 베이즈주의가 제공하는 결과적 정당화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실망스러운’ 결과이다(ibid, p.104). 즉 독단론자 입장에서도 즉각적 정당화만 얻을 수 있고 결과적 정당화는 얻을 수 없다는 결과는 피하고 싶을 것이므로 프라이어는 〈가정 1〉을 수용하기로 한다.

〈가정 2〉는 즉각적 정당화를 얻는 것과 갱신과의 관계를 말한다.

---

7) “**Assumption-4** If you *already* need to be justified to a certain degree in believing A, in order to acquire some new quantity of justification to believe B, then it’s false to say that your new justification for believing B is immediate. It did after all need to include at least that degree of antecedent justification to believe A.” (ibid, p. 112)

〈가정 2〉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갱신하는 것이 즉각적 정당화를 설명하는지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다. 즉각적 정당화를 얻는 명제는 베이즈주의의 형식화된 틀 내에서 갱신되는 명제와 동일하다. 베이즈주의에서 인식적 변화는 가설에 해당하는 명제의 확률을 갱신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정 2〉는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프라이어는 〈가정 1〉을 설명할 때 언급되었던 바로 그 우려 때문에 〈가정 2〉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다. 갱신 과정은 결과적 정당화를 얻는 과정인 반면, 즉각적 정당화는 초견적 정당화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즉각적 정당화를 얻는 명제와 갱신되는 명제가 같은 명제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즉각적 정당화의 개념을 베이즈주의의 틀 내에서 적절하게 나타내고자 한다면 〈가정 2〉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가정이다. 여기에서 프라이어는 〈가정 1〉과 〈가정 2〉를 다루는데 있어서 모순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장의 다음 절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프라이어는 화이트도 〈가정 2〉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본다. 그 이유는 화이트가 최대한 독단론자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비판을 제기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기 때문이다. 만약 화이트가 〈가정 2〉를 받아들인다면 복잡한 확률 증명을 제시할 필요 없이 단지 즉각적 정당화를 결과적 정당화로 환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독단론과 베이즈주의가 상충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독단론은 〈가정 2〉를 거부해야 하고, 〈가정 2〉를 거부할 경우 H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갱신함으로써 H가 즉각적 정당화를 얻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화이트는 바로 그 점이 H가 즉각적 정당화를 얻은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정당화를 얻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프라이어는 그 대신 화이트가 E를 갱신되는 명제로 보고, E의 갱신에 의해서, 단지 경험의 내용만을 말하는 E가 아니라 E보다

강한 주장인 H를 즉각적 정당화를 얻을 수 있는 명제로 설정하였다고 본다(ibid, p.109). H가 아닌 다른 명제인 E가 갱신되고, E의 갱신에 의해서 H가 갱신되고, 즉각적 정당화는 E가 아니라 H가 획득한다. 화이트가 이러한 전략을 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즈주의에서 H에 대한 믿음은 자료인 E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가질 때에만 일어날 수 있다. E를 아예 자료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E에 의해서 H를 갱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E에 대한 갱신이 먼저 필요하다. 둘째, H를 갱신하는 것이 E일 경우 인식주체는 E를 반성적으로 의식하는 상황에 놓인다. 독단론은 D1을 주장할 때 경험이 제공하는 즉각적 정당화를 얻기 위해서 인식주체가 반드시 그 경험을 의식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화이트는 독단론을 베이즈주의의 틀로 나타내는 과정에서 인식주체가 E를 인식하는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독단론이 요구하는 것보다 정보를 많이 가진 인식주체가 부딪히는 난관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정보가 많은 이 인식주체가 즉각적 정당화를 얻지 못한다면 (E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정보가 적은 인식주체도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얻을 것이다. 즉 화이트는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인식주체를 설정함으로써 독단론이 극복하기에 더 어려운 비판을 제기하고자 한다.

〈가정 3〉의 경우, 프라이어는 A를 믿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리 일어나는 정당화를 ‘사전확률’로, B를 믿기 위한 어떤 새로운 양의 정당화를 ‘사후확률’로 보고, 이 가정이 ‘사전확률의 인식적 선행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본다(ibid, p.112). 독단론과 경신주의 모두 이 가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 독단론의 D3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가정 3〉은 사후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사전확률이 필요할 경우, 사전확률이 인식적 선행성을 가지며 먼저 정당화를 얻고, 따라서 사후확률은 즉각적 정당화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한편, 경신주의자는 D3는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가정 3〉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신주의자도 현재 우리의 논의에서 문제시되는 F의 경우 사전적 정당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으므로, 화이트의 비판에 대응하고자 하는 경신주의자는〈가정 3〉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가정 3〉은 〈가정 2〉와 함께 수용되거나 거부되어야 한다. 〈가정 3〉에 따르면, H가 즉각적 정당화를 얻기 위해서는 H가 아닌 다른 것의 정당화가 먼저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 H의 즉각적 정당화는 H가 아닌 다른 것 - 이를테면 E - 의 갱신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미 E의 갱신에 대한 정당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H가 즉각적 정당화를 얻기 위해서는 H가 가장 먼저 갱신되는 명제여야 한다. 이는 곧 〈가정 2〉가 말하는 바와 같으므로, 〈가정 2〉를 거부한다면 〈가정 3〉도 거부해야 하고, 〈가정 2〉를 수용한다면 〈가정 3〉도 수용해야 한다.

프라이어에 따르면 화이트는 〈가정 3〉에 대해서 모순된 태도를 가진다. 화이트는 비판의 후반부에서 〈가정 3〉을 전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sim F$ 의 사전확률보다 H의 사후확률이 더 높을 수 없다는 결과를 정당성 전이 실패와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만약 사전확률이 먼저 정당화된다는 전제가 없다면 H의 사후확률이  $\sim F$ 의 사전확률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화이트가 〈가정 3〉과 함께 수용해야 하는 〈가정 2〉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가정 2〉를 거부하면서 화이트는 즉각적 정당화의 대상과 갱신의 대상을 다른 명제로 설정하였다. 그는 〈가정 2〉를 받아들였다면 택할 수 있는 쉬운 비판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독단론이 H를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E를 갱신함으로써 H에 대한 즉각적 정당화를 획득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화이트가 전반부에서는 〈가정 3〉을 거부하였지만 정당

성 전이 실패와 관련한 후반부에서는 <가정 3>을 받아들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프라이어는 화이트가 인식적 의존관계와 함수적 선행성을 혼동하였음을 지적한다. 비판의 전반부에서 화이트는 ‘형식화에 있어서 함수적인 의존은 인식적인 의존과 우선순위에 대한 사실들을 반영한다고 일반적으로 가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가정한다(ibid, pp.113-114).<sup>8)</sup> 즉 화이트도 독단론을 베이즈주의의 형식적인 틀로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독단론을 다룰 때 언급되는 인식적인 의존관계를 베이즈주의의 형식에서 가정하는 함수적 선행성으로 환원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화이트는 <가정 2>와 <가정 3>을 서로 다른 의존관계를 가진 것으로 본다. 그는 <가정 2>를 인식적인 의존관계에 대한 것으로 보고, 자신의 비판을 독단론에 최대한 배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를 거부하였다. 한편 그는 <가정 3>을 함수적인 선행성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고, 후반부에서 이 가정을 받아들인다. 그런데 그는 후반부에서 <가정 3>을 받아들임으로써 독단론의 정당성 전이 실패를 보일 때, 이미 전반부에서 인식적인 의존관계와 함수적 선행성을 다른 것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함수적인 의존관계를 빌어서 인식적인 의존관계인 독단론의 정당성 전이 실패를 주장하게 되는 내적 모순을 가지게 된다. 프라이어는 화이트의 후반부 비판이 이러한 전략을 취하기 위해서는 <가정 3>이 말하는 사전확률의 인식적 선행성을 받아들일만한 ‘특별한 동기’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ibid, p.114). 인식적인 의존관계와 함수적 선행성을 같은 것으로 볼지 아닐지는 논의가 더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 2) 프라이어의 대응이 가진 문제점

---

8) “So what White has relied on is that *the functional dependencies in the formalism can't in general be assumed to mirror the facts about epistemic dependence and priority* (ibid, pp. 113-114).”

프라이어의 대응은 F를 베이즈주의로 형식화하기 어렵다는 점과 F를 베이즈주의로 형식화한다고 해도 화이트의 비판은 〈가정 3〉에 대해서 내적으로 모순된 태도를 가진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대응이 화이트의 비판을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다.

첫째, 우리는 F를 과연 흔치 않은 약화자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F는 손이라는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는 단지 대표적인 경우일 뿐이고 실제로 F가 의도하는 바는 우리의 경험 전반에 대한 의심이므로 우리는 F를 흔치 않은 약화자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손을 보는 것 같은 경험이 매번 일어날 때마다 그 개별적인 경우에 국한된 의심이 제기된다고 할 경우, 우리는 F를 흔치 않은 약화자로 볼 수 없다. 또한 F가 부정하는 명제는 H인데, H는 특정한 보조 가설이 아니라 바로 경험이 즉각적 정당화를 제공하는 명제이다. 그렇다면 F는 반대자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만약 F를 흔한 약화자로 볼 경우, 경신주의는 D3를 주장하지 않으므로 F에 대한 사전적 정당화가 필요함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프라이어는 화이트가 비판의 전반부에서는 〈가정 3〉을 거부하지만 둘째 단계에서는 〈가정 3〉을 인정하는 모순된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화이트가 〈가정 3〉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독단론에 문제가 되는 것은  $\sim F$ 에 대한 정당화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만 H에 대한 정당화가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화이트가 〈가정 3〉을 포기하고, 정당성 전이 실패에 대한 비판을 철회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베이즈주의와 독단론이 상충하는 지점이 있다는 전반부의 비판은 유효하다. 베이즈주의에 따르면 경험 E는 H와 F를 모두 입증하는데, 이 결과가 경험 E가 H는 입증하되 F는 반입증한다는 독단론의 주장과 상충된다는 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이트가 〈가정 3〉을 부정한다고 해도, 정당성



전이 실패로 인한 독단론의 실패를 보일 수는 없지만, 여전히 독단론과 베이즈주의가 상충된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셋째, 프라이어는 화이트의 입장이 가진 내적인 모순을 지적하였지만, 본인의 입장도 유사한 모순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 〈1〉 독단론의 즉각적 정당화는 초견적 정당화이고, 베이즈주의에서 사후확률이 사전확률보다 높아지는 것은 결과적 정당화로, 이 둘은 다른 성격의 정당화이다.
- 〈2〉 (환원불가능계) 즉각적 정당화를 얻는 과정은 결과적 정당화를 얻는 베이즈주의의 갱신 및 입증 과정으로 환원될 수 없다.
- 〈3〉 만약 즉각적 정당화를 얻는 과정이 결과적 정당화를 얻는 베이즈주의의 갱신 및 입증 과정으로 환원될 수 없다면, 독단론은 결과적 정당화를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 〈4〉 독단론은 결과적 정당화를 획득할 수 없는 입장이다.

위에서 〈1〉은 독단론에서 말하는 즉각적 정당화와 베이즈주의의 갱신 및 입증 과정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말한다. 전자는 추가적인 사전적 정당화나 다른 추론이 필요 없는 초견적 정당화이고, 후자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획득하는 결과적 정당화이다. 〈2〉는 〈1〉을 근거로 하여 등장한다. 〈2〉는 즉각적 정당화는 결과적 정당화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초견적 정당화와 다르게 결과적 정당화를 획득하기까지의 과정에는 사전확률과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3〉은 만약에 〈2〉가 성립한다면 독단론은 베이즈주의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적 정당화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입장이 〈1〉, 〈2〉, 〈3〉을 받

아들인다면 <4>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프라이어는 <1>과 <3>은 받아들이고, <2>에 대해서 모순된 태도를 보인다. 먼저 그는 <가정 1>을 받아들일 때 <2>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비록 <1>이라고 해도 <4>와 같은 결과에 봉착하는 것은 독단론자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정 1>을 받아들인다. 이 때 프라이어는 즉각적 정당화를 얻는 것을 자료가 가설을 입증하는 것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그는 <4>와 같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2>를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2>를 부정한다는 것은 곧 그가 즉각적 정당화를 베이즈주의의 갱신 및 입증과정으로 환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프라이어는 <가정 2>를 거부하는 이유로 <2>에 호소한다. 그는 <가정 2>를 받아들일 경우 <2>와 상충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가정 2>를 거부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라이어의 입장 또한, 독단론의 즉각적 정당화와 베이즈주의의 결과적 정당화가 분명히 다른 성격을 가진다는 <1>은 인정하면서도, <2>를 거부해서 <가정 1>을 받아들이고, 다른 한편 <2>를 받아들이므로 <가정 2>를 거부하는 모순된 태도를 가진다. 화이트의 비판에 대한 본인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프라이어도 화이트의 비판을 최대한 이해하면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가정 1>을 받아들이고, 이후 자신의 대응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가정 2>를 거부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 4. 화이트의 비판에 대한 새로운 제안

- 1) 화이트와 프라이어의 입장에 존재하는 공통적인 숨은 전제 지금까지 베이즈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독단론에 제기된 화이트의

비판과, 이에 대한 프라이어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프라이어의 대응도 화이트의 비판에 대해서 그리 만족스러운 대응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화이트의 비판을 해결할 다른 길은 없을까?

새로운 제안을 소개하기에 앞서, 화이트와 프라이어의 입장에 존재하는 공통적인 숨은 전제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제안은 바로 이 공통적인 전제들을 거부하는 지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동기〉 〈2〉를 부정해야만 - 즉각적 정당화를 얻는 과정을 결과적 정당화를 얻는 갱신 및 입증 과정으로 환원할 수 있어야 - 독단론의 즉각적 정당화를 베이즈주의의 틀 내에서 다룰 수 있다.

〈공통전제 1〉 즉각적 정당화를 얻는 과정은 베이즈주의에서 제시하는 세 단계의 과정 중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사후확률을 계산하고 가설에 대한 자료의 입증 여부를 추론하는 과정과 일치한다.

〈공통전제 2〉 자료에 해당하는 경험의 명제적 내용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확률로 표현될 수 있고 또한 갱신될 수도 있다.

나는 화이트와 프라이어가 공통적으로 앞 장의 환원불가능제인 〈2〉를 부정하고 있다고 본다. 단, 프라이어가 〈2〉에 대하여 모순된 태도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잠시 뒤에 설명할 것이다. 이들이 〈2〉를 부정하는 까닭은, 〈2〉를 부정해야만 독단론을 베이즈주의의 틀로 다룰 수 있고 따라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보는 동기가 있기 때문이다. 〈동기〉는 이를 표현한 것이다.

〈2〉를 부정하면서 이들의 입장은 두 가지 공통적인 숨은 전제를 가지게 된다. 〈2〉를 부정한다는 것은, 결과적 정당화는 조건적 정당화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 정당화를 결과적 정당화를 얻는 갱신 및 입증 과정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2〉를 거부하는 입장들은 즉각적 정당화를 얻는 과정이 과연 베이즈주의의 추론 과정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공통전제 1〉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베이즈주의는 세 가지 단계를 가졌다. 그 세 가지 요소란 각각 (a) 사전확률 결정, (b) 사전확률과 자료를 이용한 사후확률의 계산(갱신), (c) 사후확률을 이용한 가설에 대한 추론(입증 및 반입증에 대한 판단)이었다. 〈공통전제 1〉은 독단론의 즉각적 정당화를 얻는 과정이 위 세 단계 중 (b)~(c) 단계에 해당하며 특히 (c) 단계에서 자료가 가설을 입증함이 밝혀지는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말한다.

〈공통전제 2〉는 즉각적 정당화를 얻는 과정을 결과적 정당화를 얻는 과정으로 환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이다. 베이즈주의에서 확률과 갱신은 모두 명제적 내용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경험이 베이즈주의에서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경험이 명제적 내용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 그 내용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확률로 표현될 수 있으며 또한 갱신 대상의 후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해야 한다. 화이트와 프라이어 모두 E가 일어났을 때의 H와 F의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때 반드시 경험 E의 확률인  $P(E)$ 가 필요하므로 이들 모두 〈공통전제 2〉를 가정한다고 볼 수 있다.

화이트의 비판과 프라이어의 대응이 모두 〈공통전제 1〉을 받아들인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화이트가 〈공통전제 1〉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은 그가 사전확률이 주어지는

상황을 설정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이트는 사전확률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마취 상태에서 깨어났는데 아직 시트 밑의 손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을 가정한다. <공통전제 1>을 가진 입장은 즉각적 정당화를 얻는 과정을 베이즈주의의 (b)~(c) 단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a) 단계를 경험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래서 화이트는 손처럼 보이는 경험이 주어지기 전의 상황, 즉 시트 밑의 손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황을 사전확률을 정하는 단계로 본다. 이 상황에서 사전확률은 세 장의 카드 - 손이 아예 없는 경우, 손을 잘라내고 가짜 손을 붙인 경우, 손을 그대로 놔둔 경우 - 에 대한 확률로 각각 1/3 이었다.

또한 <공통전제 1>은 프라이어가 <가정 1>과 <가정 2>를 해석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할 때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그의 입장에 문제가 생기게 하는 전제이기도 하다. 그는 <가정 1>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4>의 결과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프라이어는 <동기>외에도 <4>를 피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2>를 부정하고자 한다. 그가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그는 <동기> 때문에 <공통전제 1>을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공통전제 1> 때문에 <가정 1>의 ‘정당화’를 ‘즉각적 정당화’로 보게 된다. <공통전제 1>을 받아들일 경우 즉각적 정당화를 얻는 과정을 베이즈주의의 (b)~(c) 단계로 보기 때문에, <가정 1>에서 말하는 ‘정당화’와 ‘확률’은 각각 즉각적 정당화와 사후확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정 1>의 정당화를 즉각적 정당화로 해석할 경우, <가정 1>을 거부하는 것은 곧 즉각적 정당화를 베이즈주의의 갱신 과정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는 <2>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프라이어로서는 <4>를 피할 길이 없게 된다. 그러나 <공통전제 1>이 없다면 <가정 1>만으로는 ‘더 많은 정당화를

얻는 것'의 '정당화'가 어느 종류의 정당화인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므로, 〈가정 1〉을 수용하는 것이 곧 〈2〉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프라이어는 〈가정 2〉를 거부할 때도 〈공통전제 1〉을 인정한다. 그는 다음과 같은 추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통전제 1〉과 〈가정 2〉를 모두 받아들이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 경우 즉각적 정당화를 얻는 과정과 갱신 및 입증의 과정이 동일한 하나의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동일한 하나의 명제가 갱신되어서 결과적 정당화도 얻으면서 동시에 즉각적 정당화도 얻게 된다. 이 결과는 〈2〉를 부정하는 것, 즉 환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함축하게 된다. 프라이어는 이 단계에서 '동일한' 하나의 명제가 결과적 정당화와 즉각적 정당화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문제가 된다고 본다. 그리고 이 상황이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 상황이 환원불가능제인 〈2〉와 상충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실제로 이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공통전제 1〉 때문이다. 만약 〈공통전제 1〉을 거부한다면 〈가정 2〉는 〈2〉와 상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어떤 명제가 즉각적 정당화를 얻는 과정과 그 명제가 갱신되는 과정이 동일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어떤 동일한 하나의 명제가 하나의 증거에 의해서 즉각적 정당화를 먼저 얻은 후 또 다른 자료에 의해서 갱신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프라이어는 모순된 태도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그가 바로 이 지점에서 〈공통전제 1〉을 의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가정 2〉만으로 〈2〉와 상충한다고 보았고, 〈2〉와 상충한다는 점을 〈가정 2〉를 부정하는 것에 대한 이유로 제시하기 때문에 모순에 봉착하였다. 그러나 〈2〉와 상충하는 것은 바로 〈공통전제 1〉이다. 〈공통전제 1〉은 처음부터 〈2〉를 부정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통전제 1〉을 받아들일 경우, 〈가정 1〉과 〈가정 2〉는 동시에 수용되어야 한다. 〈가정 1〉에서 말하는 가설의 확률을 높이는 것이 바로 〈공통전제 1〉과 마찬가지로 베이즈주의의 (b)~(c)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통전제 1〉을 받아들일 경우 갱신이 이루어지는 명제와 즉각적 정당화를 얻는 명제는 모두 (b)~(c) 단계에서 가설에 해당하는 명제가 될 것이므로, 〈가정 2〉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프라이어는 〈공통전제 1〉을 받아들이고 〈가정 2〉를 수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의 근거가 되었던 〈1〉이라는 직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즉 그는 자신이 받아들이는 〈공통전제 1〉과 상충하는 〈1〉이라는 직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 2〉를 다루는 지점에서 마치 〈1〉로부터 등장한 〈2〉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는 〈2〉와 상충하는 것으로 보이는 (실제로 〈2〉와 상충하는 것은 〈가정 2〉가 아니라 〈공통전제 1〉이지만) 〈가정 2〉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결국 프라이어는 자신이 제시한 가정들을 다루기 이전에 이미 〈공통전제 1〉에 대해서 모순된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에 직면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만약 그가 〈2〉를 부정하면서 〈공통전제 1〉을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2〉를 모순 없이 거부하고자 한다면, 그도 〈가정 2〉를 거부할만한 다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 2) 새로운 제안: 사전확률의 결정과 즉각적 정당화

그렇다면 독단론의 즉각적 정당화를 베이즈주의로 표현하고자 하는 입장들은 모두 〈2〉를 부정하고 〈공통전제 1〉과 〈공통전제 2〉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또한 〈4〉는 분명 독단론자도 피하고 싶은 결과인데, 〈4〉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를 부정해야 하는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리하여 내가 택하는 전략은 두 가지 공통전제를 거부하고, <1>에서 <4>로 이어지는 논증에서 <3>을 부정하여 <4>를 피하는 것이다. 즉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입장은 환원불가능제인 <2>를 인정한다. 또한 <1>과 <2>를 지키는 것이 이 입장의 가장 큰 동기이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을 택할 경우 독단론의 즉각적이면서도 파기가능한 정당화를 베이즈주의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설명할 수 있으며, 프라이어가 제시한 세 가지 가정들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미리 밝히자면, 나는 이 새로운 제안이 확실하게 성공할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5장에서 보이겠지만, 이 새로운 제안도 그 나름의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을 시도함으로써 프라이어의 제안과 다른 방식으로 독단론을 옹호해보고자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 또한 다른 문제에 부딪힌다는 것은 독단론에 보다 어려운 과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우선 새로운 제안은 두 가지 공통전제를 부정한다. 즉 이 입장은 독단론의 즉각적 정당화를 얻는 과정을 베이즈주의의 (b)~(c) 과정으로 환원하는 것을 거부하는데, 그 이유는 <1>과 <2> 때문이다.

초견적 정당화는 독단론에서 말하는 즉각적이면서 파기가능한 정당화의 가장 큰 특징이다. 반면 베이즈주의의 갱신 및 입증 과정은 결과적 정당화를 얻는 과정이다. 바로 여기에서 베이즈주의에서 사전확률보다 더 높은 사후확률을 계산하여 얻는 것과 독단론에서 말하는 초견적이고 즉각적인 정당화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발생한다. 베이즈주의에서 사전확률과 자료에 상대적으로 사후확률을 계산해 내는 것은 여러 가지 추론을 거친다. 우리는 사전확률을 주관적으로 설정하거나, 사전확률을 정할만한 정보를 얻어서 수치화하여야 하고, 또한 실제로 확률 실험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거나 이미 확보한 자료를 수치화하여 나타내어야 한다. 그 다음 사전확률과 자



료를 베이즈 정리에 대입하여 사후확률을 계산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험이 가지는 명제적 내용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수치화되어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독단론이 주장하는 D1, D2, D3는 경험의 명제적 내용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수치화될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즉각적 정당화를 얻기 위해서 사전확률이나 자료에 대한 우선적인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독단론은 단지 어떤 경험을 하는 상태에 있는 것만으로도 일단 경험하는 그대로 그 경험의 내용을 믿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새로운 제안은 두 공통전제가 독단론이 본래 주장하고자 하는 즉각적 정당화의 가장 큰 특징을 훼손시킨다고 생각하므로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대신 새로운 제안에서는 다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각적 정당화를 얻는 과정은 결과적 정당화가 발생하기 이전의 단계인 사전확률을 구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즉 즉각적 정당화를 얻는 과정을 갱신 및 입증 과정인 (b)~(c) 단계에 해당한다고 본 <공통전제 1>과 다르게, 새로운 제안은 즉각적 정당화를 얻는 과정이 베이즈주의의 (a) 단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베이즈주의에서 사전확률이란 자료를 구하기 이전에 이미 알려진 상태를 반영하는 확률을 말한다. 즉 어떤 실험이나 관찰이 이루어지기 전 가설에 대한 추정치를 뜻한다. 사전확률의 가장 큰 특징은 그 확률을 정하기 위한 사전정보가 주관적이고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전확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그 결과 사전확률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주관적인 사전확률이고, 다른 하나는 객관적인 사전확률이다. 전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제시할 때 그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을 반영하여 결정한 사전확률이고, 후자는 균등분포를 사전분포로 이용하는 무정보적 사전분포(noninformative prior

distribution) 또는 제프리 사전분포(Jeffrey's prior distribution) 등이 있다(강기훈 외 2005, pp.79-82).

새로운 제안은 독단론에서 말하는 조건적이고 즉각적이며 파기가 가능한 정당화를 얻는 것은 여러 사전확률의 종류 중에서도 주관적 사전확률을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경험이 나에게 주는 정당화는 경험이 가진 현상성을 통해 주어진다는 점에서 1인칭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손을 보는 경험을 통해서 '이것은 진짜 손이다'라고 생각할 때 균등분포를 구하거나 제프리 사전분포를 구하는 과정에 유비될만한 여러 추론을 거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과정은 매우 단순하고 주관적으로 이루어진다. 단지 *나에게* 손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 눈 앞의 대상이 진짜 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단론에서 말하는 즉각적 정당화를 얻는 과정은 주관적 사전확률을 정하는 바로 그 최초의 과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새로운 제안에서 즉각적 정당화를 얻는 과정이 베이즈주의의 (a) 단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이 입장이 〈공통전제 2〉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입장은 두 가지 공통전제를 모두 부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a) 단계도 베이즈주의의 추론 과정 중 한 단계이기 때문에 경험의 명제적 내용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확률로 표현하고 갱신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제안은 경험을 확률로 나타낼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 입장은 경험을 아예 확률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경험이 제공하는 즉각적 정당화의 정도에 따라서 그 경험으로부터 즉각적 정당화를 얻은 그 명제의 신뢰도는 (a) 단계의 사전확률에 해당하는 어떤 수치로 나타낼 수 있지만, 경험 자체의 신뢰도를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경험  $E$ 가 가설  $H$ 에 대해서 즉각적 정당화를 제공한다면,  $E$ 가  $H$ 에 대해서 제공하는 정당화의 정도인  $P(H)$ 라는 사전확률에 대해서는 물을 수 있지만,  $P(E)$ 는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새로운 제안은 경험이 제공하는 즉각적 정당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지도 않는다. 물론 새로운 제안은 독단론의 입장을 반영하여 화이트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제안으로, 독단론자가 받아들여서 발전시킬 수 있는 제안이기는 하다. 그러나 단지 이 제안이 주장하는 것은, 만약 경험이 제공하는 즉각적이면서 파기가능한 정당화가 있다면 그러한 정당화는 사전확률을 결정하는 단계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 그 반영된 결과가 바로 사전확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경험은 사전확률을 정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정보에 속하고, 경험으로부터 정당화를 얻은 믿음의 신뢰도가 사전확률에 해당한다. 새로운 제안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동기는 기존의 입장들이 독단론이 주장하는 즉각적 정당화의 특징을 살리지 못하거나 독단론에 지나치게 불리한 방식으로 독단론을 형식화한다고 보는 점에 있다.

다음으로, 새로운 제안은 <3>을 부정한다. 새로운 제안은 즉각적 정당화를 얻는 과정이 베이즈주의의 추론과정 중 결과적 정당화를 얻는 부분인 (b)~(c) 과정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단론이 결과적 정당화도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사전확률과 관련된 (a) 단계와 사후확률과 관련된 (b)~(c) 단계가 각각 다른 종류의 정당화와 관련된다고 함으로써 가능하다.

새로운 제안에서는 사전확률을 정하는 (a) 단계를 명제적 정당화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이후 새로운 자료에 의해서 (b)와 (c) 단계를 거쳐서 사후확률을 계산하고 믿음을 조정하는 것을 믿음적 정당화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본다. 믿음적 정당화는 명제적 정당화를 포

함하여 파기자가 없는 것까지를 요구하는 정당화이므로, 믿음적 정당화의 과정을 결과적 정당화의 과정과 동일한 과정으로 도식화하는 것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믿음적 정당화는 조건적이고 즉각적 정당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사후확률이 사전확률보다 낮게 나온다면, 명제적 정당화는 획득하였지만 이후 새로운 자료가 파기자의 역할을 하여 믿음적 정당화는 획득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새로운 제안에서는 베イズ주의의 갱신 과정 중 (a) 단계에서 명제적 정당화인 즉각적 정당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b)~(c)에서 파기자를 비롯한 새로운 자료를 고려하여 믿음적 정당화 또는 결과적 정당화가 획득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sup>9)</sup>

---

9) 한 심사위원께서 각주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믿음적 정당화는 조건 (iii)인 “a는 e에 기반해서(based) p를 믿는다”는 것을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필자는 독단론에서 말하는 조건적 정당화를 대략 다음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a가 p를 믿음에 있어서 믿음적으로 정당화되려면, a가 p를 실제로 믿고 또 그 믿음이 정당하면 그만이다. 이 아이디어에 의하면, 그런 조건적 정당화를 위해서 a가 증거 e를 조건화 등의 과정을 거쳐서 p에 대한 신념도에 반영해야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것은 조건 (iii)을 포함하는 상태로서의 믿음적 정당화 개념과 충돌한다. 왜냐하면, (iii)에 의하면, a가 p를 믿음적으로 정당(doxastically justified)하게 믿는다는 것은, 증거 e를 p에 대한 신념도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믿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심사위원께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를 하신 것 같다. 현재의 제안은 경험이라는 사전정보에 의해서 사전확률을 정하는 것을 명제적 정당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정한 후, 또 다른 증거에 의해서 사후확률을 정한다. 그래서 사전확률을 정할 때 이용한 자료와 사후확률을 정할 때 이용한 자료가 서로 다른 것이므로, 믿음적 정당화는 명제적 정당화가 근거한 바로 그 증거가 아니라 다른 증거에 의해서 획득되는 것이므로, 믿음적 정당화에서 조건 (iii)을 배제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가 이러한 점을 의도한 것은 아니다. 경험 e는 이미 사전확률을 정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사전확률과 자료라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사후확률에 경험 e의 기여가 배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아마도 또 다른 문제들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내가 제시한 대안에 따르면 여전히 믿음적 정당화가 경험 e의 기여를 최소한 배제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바로 그 e에 근거하여 새로운 정당화를 얻는

그렇다면 경험이 주는 즉각적 정당화가 있다면 그 즉각적 정당화가 반영되어 결정된 사전확률은 어느 정도의 값이어야 하는지 물을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제안은 사전확률의 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본다. 다음의 상황을 생각해보자. 회의주의자인 S는 자신이 통 속의 너라고 믿고 있다. 물론 S는 자신이 통 속의 너라는 것을 증명할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S는 회의주의자이기 때문에, 손을 보는 것 같은 경험 E가 주어졌을 때, H의 사전확률을 0.01로 정하고, F의 사전확률을 0.99로 정하였다. 이후 S의 친구가 ‘너는 진짜 손을 가졌어’라고 말한다. 친구의 말을 듣는 경험을 R이라고 하고 친구의 말을 W라고 하자. 그리고 W가 정말로 믿을만한 정보라면, 이 때 H일 확률을 0.99라고 하고, F일 확률을 0.01이라고 한다. 반대로 W가 믿을만한 정보가 아니라면, H일 확률은 0.01이고 F일 확률은 0.99라고 해 보자.

---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내가 제시한 대안은 명제적 정당화와 믿음적 정당화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나는 이 점을 인정하고, 이러한 지적을 해주신 심사위원께 감사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이해와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도 5장에서 제시하는 진단은 여전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또 다른 한 심사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새로운 제안이 말하는 명제적 정당화는 “‘손이 있다는 명제에 0.01의 사전확률을 부여한다’에 대한 정당화”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이는 독단론이 말하는 즉각적 정당화와 또 다른 정당화 개념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사전확률을 정할 때 정당화를 얻는 명제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다 더 큰 문제로는, 다른 심사위원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으로,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은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점이다. 내가  $t_n$ 이라는 시점에 정한 사전 확률은  $t_{n-1}$ 에서의 사후 확률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사전 확률을 얻는 과정이 즉각적 정당화의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새로운 제안의 입장과 충돌한다. 나는 이러한 문제들이 충분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번 논문에서는 다루지 못하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위 사례에서 S를 회의주의자로 설정한 것은 경험으로부터 즉각적 정당화를 얻은 명제의 사전확률이 0보다는 크지만 매우 낮은 값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회의주의자 S가 자신의 경험 E를 토대로 H에 대한 사전확률을 정한 값은 0.01이라는 작은 값을 가진다. S가 생각하기에 E로부터 즉각적 정당화를 얻는 명제인 H를 믿을만한 정도는 0.01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H가 E로부터 얻는 즉각적 정당화의 정도는 0.01에 불과하다. 만약 S가 자신이 통 속의 뇌라는 것을 믿을만한 좋은 근거가 있다면, 경험이 제공하는 즉각적 정당화는 파기될 것이고, 이 경우 H의 사전확률은 아예 0이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때 사전확률은 H와 F라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제공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화이트가 손이 아예 없는 상황까지 가정하여 세 가지 경우를 사전확률의 상황으로 제시한 것과는 다르다. 그 이유는, 화이트의 논증에서는 경험이 자료로서 주어지는 단계가 베이즈주의의 (b) 단계에 해당하였던 반면 위 사례에서 경험이 주어지는 단계는 (a) 단계 이전이기 때문이다. 경험이 사전확률을 정하기 전에 주어지므로, 손을 보는 경험이 없는 상황을 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제안에서 S는 E를 토대로 하여 주관적으로  $P(H)$ 와  $P(F)$ 를 정할 수 있는 반면, 경험 자체는 확률을 물을 수 없는 것이므로  $P(E)$ 는 나타낼 수 없다. 친구의 말은 새로운 증거 W로서 제시된다. W는 E와는 별개의 사건인 R을 통해서 주어진다. R 또한 경험이므로,  $P(R)$ 은 나타낼 수 없다. 대신 이후 주어진 새로운 증거인 W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P(H)$ 와  $P(F)$ 의 사후확률인  $P(H|W)$ 와  $P(F|W)$ 는 각각 다르게 계산될 것이다. 이 사후확률의 계산 결과에 대해서는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이와 같이 이해한 새로운 제안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첫

째, 초견적이고 즉각적인 정당화를 얻는 과정의 간단함을 설명할 수 있다. 독단론이 말하는 정당화는 화이트의 비판과 프라이어의 대응이 가정하는 것처럼 사전에 주어진 어떤 믿음을 얼마나 믿을지를 경험에 비추어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독단론이 말하는 정당화는 일단 경험이 먼저 주어지고, 우선은 이 경험의 액면가 그대로 믿는데, 그 믿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손을 보고 ‘이것은 손이다’라고 믿게 되는 과정을 생각해보자. 실제로 우리가 ‘이것은 손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시트로 손이 가려진 상황처럼 손을 보기 전의 상황에서 우선 내가 손이 있을 확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 손을 보고, 그 후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손일 확률을 조정하지 않는다. 나는 비록 내가 통 속의 뇌일 가능성이거나 내가 잠을 자는 사이 누군가 나를 마취하고 내 손을 아주 정교한 가짜 손으로 바꿔치기 하였을 가능성을 부정할만한 증거는 갖지 못할지라도 단지 내 앞에 손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손이다’라고 믿는다.

둘째, 이와 같은 설명방식을 택할 경우 명제적 정당화는 획득하였으나 믿음적 정당화는 획득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공통전제들을 가정하는 입장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화이트와 프라이어처럼 두 가지 공통전제를 가정하는 입장이라면 즉각적 정당화인 명제적 정당화를 얻는 과정이 이미 (b)와 (c) 단계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 경우 명제적 정당화를 얻었다는 것은 이미 자료에 의해서 사후 확률이 사전확률보다 높아졌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입장에서는 명제적 정당화는 얻었지만 믿음적 정당화는 얻지 못하는 경우를 이 형식적인 틀 내에서 나타내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한번의 사후확률 계산 과정을 통해서 명제적 정당화를 획득하기만 하면 동시에 믿음적 정당화도 획득할 수 있다고 말하거나, 최종적인 계산 결과를 통해서 얻은 결과적 정당화가 믿음적 정당화가 아니라

명제적 정당화라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전자를 택한다면 명제적 정당화는 있지만 믿음적 정당화가 없는 상황이 불가능하므로 틀린 설명이고, 후자를 택한다면 믿음적 정당화를 얻는 방법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거나, 믿음적 정당화를 베이즈주의의 틀 내에서 다루지 않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한편 새로운 제안의 경우, 사전 확률은 결정하였지만 이후 파기자 등의 새로운 자료에 의해서 사후 확률이 사전확률보다 낮아지는 상황으로 명제적 정당화는 획득하였으나 믿음적 정당화는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sup>10)</sup>

셋째, 새로운 제안을 따를 경우 프라이어의 세 가지 가정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프라이어의 가정들은 독단론의 즉각적 정당화를 베이즈주의로 나타내고자 하는 입장들이 받아들일만한 것으로, 이 가정들을 잘 받아들일수록 보다 직관적으로 무리없이 독단론을 베이즈주의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가정 1>부터 보자. 프라이어가 <가정 1>의 ‘정당화’를 ‘즉각적 정당화’로 해석하게 된 것은 <공통전제 1>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정 1>만으로는 ‘즉각적’ 정당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가정 1>은 어느 종류의 정당화인지는 말하지 않으면서 단지 더 많은 정당화를 얻는 것이 확률을 높여주는 것에 해당한다고만 말할 뿐이다. 새로운 제안에서는 <공통전제 1>을 받아들이지 않고 즉각적 정당화와 결과적 정당화를 얻는 과정을 각각 (a) 단계와 (b)~(c) 단계로 나누었다. 이 경우 <가정 1>에서 말하는 ‘더 많은 정당화를 얻는 것’을 ‘결과적 정당화를 얻는 것’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베이즈주의의 (b)~(c) 단계에서 사전확률보다 더 높은 사후확률을 얻는 것과 일치한다고 말함으로써, <가정 1>을 받

10) 한 심사위원께서 이 단락의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여서 덧붙인 부분이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각주 10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문제들이 더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들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제안은 즉각적 정당화를 얻는 과정과 결과적 정당화를 얻는 과정을 각각 베이즈주의의 (a) 단계와 (b)~(c) 단계로 분리한 전략을 〈가정 2〉를 수용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가정 2〉는 즉각적 정당화를 얻는 명제와 갱신되는 명제가 같은 명제임을 말하였다. 만약 〈가정 2〉가 즉각적 정당화와 갱신되는 명제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즉각적 정당화를 제공하는 경험과 갱신을 제공하는 자료가 완전히 동일한 경험의 명제적 내용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수치화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할 경우, 새로운 제안은 〈가정 2〉를 수용할 수 없다. 그러나 〈가정 2〉만으로 즉각적 정당화와 갱신을 제공하는 각각의 원천이 동일한 하나의 원천이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은 〈공통전제 1〉때문이었다. 〈공통전제 1〉을 부정하는 새로운 제안의 경우 〈가정 2〉와 상충하는 점이 없다. 앞서 제시된 사례를 다시 이용하자면, 새로운 제안에서는 동일한 하나의 명제인 H가 (a) 단계에서 E에 의해서 즉각적 정당화를 얻고, 이후 (b)~(c) 단계에서 새로운 증거 W에 의해서 갱신된다고 말함으로써 〈가정 2〉를 받아들일 수 있다.

〈가정 3〉은 사전확률의 인식적 선행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프라이어는 〈가정 3〉이 독단론자에게 위협이 되는 가정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가정 3〉이 독단론자에게 위협이 된다는 해석 또한 〈공통전제 1〉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통전제 1〉을 받아들일 경우, 경험으로 인해서 즉각적 정당화를 얻은 것은 사후확률이었다. 이 경우 사전확률이 인식적 선행성을 가진다면 사후확률이 얻은 정당화는 즉각적일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가정 2〉를 받아들일 때와 마찬가지로, 즉각적 정당화를 얻는 과정을 (a) 단계, 이후 결과적 정당화를 얻는 과정을

(b)~(c) 단계로 설정할 경우, 사전확률이 사후확률보다 인식적 선행성을 가진다는 점이 독단론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즉각적 정당화를 얻는 것은 〈가정 3〉의 A에 대한 믿음의 정도이고, 결과적 정당화를 얻는 것은 B에 대한 믿음의 정도이므로, B에 대한 믿음의 정도에 있어서 결과적 정당화가 즉각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독단론과 상충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제안은 〈가정 3〉도 문제없이 수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제안은 화이트의 비판 중 프라이어의 대응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 즉 E가 H와 F를 모두 입증한다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이트의 비판에서 E에 해당하였던 자료는 앞서 제시된 사례의 경우 사후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주어진 자료 W에 해당한다. 이 때 S가 W를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생각한다면, 베이즈정리에 따라 계산할 때 H의 신뢰도는  $P(H)=0.01$ 에서  $P(H|W)=0.5$ 로 상승한다. 한편 F의 신뢰도는  $P(F)=0.99$ 에서  $P(F|W)=0.5$ 로 감소한다.<sup>11)</sup> 즉 W는 H를 입증하고 F는 반입증한다. 또한 이 때 H의 사전확률은 0.01이라는 낮은 값에서 출발하였지만, W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면 H의 사후확률은 0.5로 높아진다. 즉 사전확률을 정할 때 경험이 제공하는 즉각적 정당화의 정도가 아무리 작아도 0보다 큰 값이기만 하면, 믿을만한 자료가 주어졌을 때 사후확률은 사전확률보다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이 대응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는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

<sup>11)</sup>  $P(H) = 0.01$ ,  $P(F) = 0.99$

$$P(H|W) = \frac{0.01 \times 0.99}{0.01 \times 0.99 + 0.99 \times 0.01} = 0.5$$

$$P(F|W) = \frac{0.99 \times 0.01}{0.99 \times 0.01 + 0.01 \times 0.99} = 0.5$$

## 5. 한 가지 남아있는 문제와 화이트의 비판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

“경험을 통해 주어진 증거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4장의 마지막에서 제시된 대응은 경험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해주는 자료 W가 주어지고 W를 신뢰할 수 있는 경우 W가 H를 입증하고 F를 반입증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과연 회의주의자인 S가 친구의 말인 W를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S는 자신이 통 속의 뇌라고 믿는 회의주의자이므로, 친구의 말을 듣는 경험 R을 전기 자극이라고 생각하고 W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만약 S가 회의주의자가 아닌 보통의 사람이라면 W를 신뢰할만한 증거로 생각할 것이고, 이 경우라면 위의 대응은 적절한 대응일 것이다. 그러나 S가 회의주의자가 아닌 경우에도 경험 R을 통해서 주어진 증거인 W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이 베이즈주의와 독단론이 상충된다는 화이트의 비판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나는 4장에서 제시한 새로운 제안이 반드시 성공적이라는 것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을 시도해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베이즈주의와 독단론이 상충된다는 화이트의 비판은 독단론의 즉각적 정당화를 베이즈주의가 가진 여러 요소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원하는지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독단론을 베이즈주의로 형식화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고, 이 중 어떤 선택지를 택하고, 즉각적 정당화를 얻는 과정을 베이즈주의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베이즈주의는 독단론과 상충하는 결

과를 낳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남아있는 문제는 오히려 화이트의 비판보다 독단론에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문제야말로 오래된 전면적 회의주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면적 회의주의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가설들 - 통 속의 뇌 가설, 전능한 악마 가설 등 - 은 결국 경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가설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참인 경험인지 거짓인 경험인지 주관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경험의 현상성이 어떻게 여러 대안들 중에서 참인 경험이라는 대안만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즉 주관적으로 구분불가능한 경험의 현상적 측면이 회의주의적 가설의 상황과 반회의주의적인 상황 모두에서 발생하는데, 어떻게 두 가지 상황 중 회의주의적 가설이라는 대안을 물리치고 반회의주의적 상황을 택할 수 있는냐는 것이다.

나는 화이트의 비판에서 E가 H를 입증하면서 F도 입증하는 결과가 나온 것도 결국 이 오래된 전면적 회의주의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화이트의 비판은 독단론이 기존에 안고 있던 문제 외에, 추가적으로 독단론이 베이즈주의와도 양립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의 비판은 주관적으로 구분불가능한 경험의 현상성에 대한 전면적 회의주의의 도전을 통계학적인 세팅에 의해서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화이트의 비판에는 다음과 같은 식이 등장했었다.

〈H와 F가 각각 발생할 경우 E가 일어날 확률〉

$$P(E|H) \cong P(E|F) \cong 1$$

위 식은 진짜 손이 있을 경우 손을 보는 경험을 하는 확률과 가짜 손이 있을 경우 손을 보는 경험을 하는 확률이 모두 1에 가깝

다는 것을 말하였다. 화이트는 이 식으로 인해서 증명의 나머지 부분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확률을 제시할 수 있었던 까닭은 결국 참인 경험과 거짓인 경험 중 어느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주관적으로 구분불가능한 경험의 현상성이 공통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화이트는 참인 경험에서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경험의 현상성이 회의주의적 가설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는 문제를 베이즈주의를 빌려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제안은 화이트와 프라이어가 가진 공통전제들과 그 동기를 거부함으로써, 최소한 전면적 회의주의 문제의 베이즈주의적 버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화이트의 비판이 제기하는 핵심이 전면적 회의주의의 문제인 이상,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면적 회의주의의 문제는 단지 독단론만을 타겟으로 삼는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인식적 역할을 인정하고자 하는 모든 입장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이다.

## 6. 나가며

지금까지 경험의 인식적 역할에 대한 한 가지 입장인 독단론과 이에 대한 비판 중 하나로 베이즈주의를 이용한 화이트의 비판, 그리고 기존의 대응인 프라이어의 대응과 문제점,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새로운 제안,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문제까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나는 독단론의 입장에서 화이트의 비판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해보고, 궁극적으로 화이트의 비판이 가진 의미를 재진단해보고자 하였다. 결국 베이즈주의를 이용한 독단론 비판도, 그 비판이 가진 핵심적인 동기는 주관적으로 구분불가능한 현상성이 어떻게 회의주의적 가설이라는 대안이 아닌

이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통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아닌가 싶다.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는 본 논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문제들이 앞으로 충분히 제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우선은 본 논문을 통해서 약간의 새로운 전망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며, 앞으로 이 입장이 새롭게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추후의 논의로 남겨놓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강기훈 외 공저 (2005), 『베이지안 통계학(개정판)』, 경기도 파주: 자유아카데미.
- 박일호 (2014), “지각적 독단론과 베이즈주의 호의성”, 『논리연구』 17 (3), pp. 399-423.
- 윤보석 (2015), “베이즈주의는 독단론에 호의적인가?”, 『논리연구』 18 (2), pp. 243-264.
- Cohen, S. (2002), “Basic knowledge and the problem of easy knowledge”,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65 (2), pp. 309-328.
- Pryor, J. (2000), “The skeptic and the dogmatist”, *Noûs* 34 (4), pp. 517-549.
- \_\_\_\_\_ (2004), “What’s wrong with Moore’s argument?”, *Philosophical Issues* 14, *Epistemology*, pp. 349-378.
- \_\_\_\_\_ (2013), “Problems for credulism”, *Seemings and Justification*, Tucker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89-131.
- Talbott, W. (2015), “Bayesian Epistemology”,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Summer 2015 Edition), Edward N. Zalta (ed.), forthcoming URL = <<http://plato.stanford.edu/archives/sum2015/entries/epistemology-bayesian/>>.
- White, R. (2006), “Problems for dogmatism”, *Philosophical Studies* 131, pp. 525-557.
- Wright, C. (2002), “Anti-sceptics simple and subtle: G. E. Moore and John McDowell”,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115 (2), pp. 330-348.

436 홍예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과정

Department of Philosophy, the Graduate School at Ewha Womans  
University

yeri88@ewhain.net



---

## A New Suggestion on the Bayesianism Problem for Epistemic Dogmatism

Yeri Hong

---

Epistemic dogmatism claims that if it seems P to you then you have immediate justification to believe P. The view has been faced with a problem that it is incompatible with Bayesianism, especially raised by Roger White(2006). James Pryor(2013), defending epistemic dogmatism, has given a reply for the problem. In this paper, first, I show some problems on Pryor's reply. Then, I present a new kind of suggestion to deal with the problem, which avoids problems Pryor's reply has. Finally, I suggest a different diagnosis on the problem.

Key Words: Epistemic dogmatism, immediate justification, Bayesianism, Roger White, James Pryor